

## 삼성전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26일(월) 윤종용 부회장 등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 공정거래 일류화 기업상 실천을 선언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삼성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 9월

발족시킨 “삼성전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가동을 본격화 해 기업간 거래의 공정거래활동 정착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공정한 거래 문화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끊임없이 연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금번 자율준수 선포식을 계기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공정거래 관련 ‘행동 및 업무준칙’을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에서 명확히 수립, 법과 기본을 중시하는 회사로서의 면모를 확립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정거래교육시스템을 부문별로 구축하고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회사 및 회사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업만이 일등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준수는 초일류 경영의 중요한 실천사항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내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정착, 그리고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